

# 연중 행사

연중 계절에 따라 기념하는 특별한 날

## 신년

### 쇼가쓰(신년)

전통적으로 쇼가츠로 알려진 설날 휴일은 추수를 관장하는 신('가미')에게 감사를 드리고 가족을 보호하는 조상신들을 환영하는 날이다. '가도마츠'(집의 입구 양쪽에 거는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 장식)와 시메-가자리(새끼줄 장식)를 다는 관습은 신과 영혼을 환영하기 위해서이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신과 조상신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신년의 풍성한 추수를 기원하기 위해 기도한다. 이러한 이유로 설날 휴일은 일본사람들에게 연중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 넨가조(연하장)

설 연휴 동안 사람들은 친척, 친구 및 지인들로부터 '넨가조'라고 하는 축하 카드를 받는다. 2020년 신정 때 배달된 연하장은 약 12억 8700만 통.

### 하쓰모데(신년을 맞아 신사와 절을 방문)

새해 연휴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쓰모데'를 간다. 신년을 맞아 맨처음 신사나 절을 방문하는 행사이다. 신도의 신사를 찾는 경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집에서 "길한 방향"에 위치한 신사를 찾는다. 신사를 참배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 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가족과 집안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하쓰모데(첫 참배)'의 방문자 수는 메이지 친구 신사가 가장 많으며(2018년은 316만 명), 두 번째 많은 가와사키 다이시 절(2018년은 302만 명), 세번째는 나리타산 신쇼지 절(2017년은 300만명)이 많다.



### 가도마쓰(소나무 장식)

'가도마쓰'라는 소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설맞이 장식이다. 집 현관 양쪽에 둔다.

### 오토시다마(아이들을 위한 세배돈)

설날 휴일 동안 아이들은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오토시다마'라고 하는 돈을 특별한 선물로 받는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설날이 오기만을 특별히 고대한다. 최근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보통 한 명당 5,000엔이나 10,000엔을 받는다. 모든 '오토시다마'를 합하면 수만엔 정도가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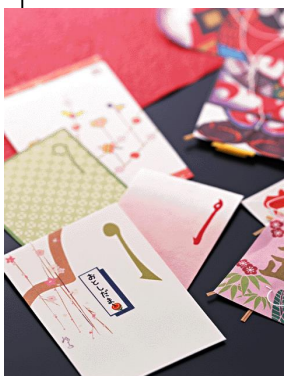
### 신년 놀이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연날리거나 팽이치기(특히 남자아이들)를 하였고 여자 아이들은 배드민턴 게임과 유사한 하네츠키라 놀이 같은 특별한 야외설날놀이를 즐겼다. 실내놀이에는 '하쿠닌 이슈' ('백 명의 시인의 백편의 시')로부터 시를 맞추어

### 하쓰모데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절이나 신사를 참배하고 새해의 건강과 번영을 빈다.

(사진제공 : AFLO)



### 세배돈

새해가 되면 아이들은 용돈을 받는다.



참가자의 민첩성을 테스트하는 ‘우타 가루타’ 카드게임과 백개먼(Backgammon)과 유사한 ‘스고로쿠’라고 하는 보드게임이 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놀이로 둘러 쌓여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이러한 설날게임들은 이전처럼 인기가 있지는 않다.

## 봄

### 세츠분

1873년 이전에는 현대의 양력보다 약 한 달 반 정도 느린 음력에 따라, 두 번째 달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날이 봄이 시작되는 날(릿쑤 또는 세츠분)이었다. 오늘날에도 겨울 중 가장 추운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날 열리는 세츠분 관습중 일부가 2월 3, 4일에 여전히 열린다. 예를 들어 집의 문과 창문을 열고 “후쿠와우치, 오니와소토”(“행운은 들어오고 귀신은 나가라.”)라고 외치고 콩을 뿌리면서 악운과 악한 귀신을 내쫓는 의식을 한다. 또한, 이날 자신의 나이만큼의 콩을 먹으면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원래 악한 영과 겨울의 차갑고 음울한 기운을 쫓아내고 새롭고 밝은 봄의 기운을 환영하기 위해 음력 마지막 날에 황실에서 지켰던 관습이다.

### 히나마츠리 (인형 축제)

봄이 멀지 않은 3월 3일에는 히나마츠리를 즐긴다. 이 날은 여자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비는 날이다. 이 날 가족들은 복숭아 꽃과 흰 사케, 다이아몬드 모양의 떡(‘히시모치’) 및 말린 작은 떡(‘아라레’)과 같은 음식을 만들고 전통적인 황실복을 입은 인형인 ‘히나닌교’를 집안에 장식한다.

히나마츠리 풍습은 정화의식과 관련된 고대의 신앙에서 유래하였다. 옛날에는 강가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와 더러운 일을 깨끗이 씻고 정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후에는 종이로 만든 인형이 이러한 의식에 사용되었으며 에도시대(1603-1867년) 이후에 이러한 인형은 오늘날과 같은 ‘히나닌교’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 하루노 히간 (춘분)

하루노 히간 또는 “봄 ‘히간’”의 전통적인 풍습은 보통 3월 21일경인 춘분을 중심으로 7일간 열린다. 이때 사람들은 가족의 묘를 방문하고 조상의 영혼에 존경을 나타내며 승려들에게 경전을 낭송하도록 부탁한다. 아키노 히간 또는 “가을 ‘히간’”이라고 하는 유사한 풍습이 9월 23일경인 추분을 중심으로 1주일 동안 열린다.

### 하나미 (벚꽃 구경)

3월 말과 4월 초에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이 절정을 이루면 일본사람들은 활짝 핀 벚나무 아래로 ‘하나미’(“꽃구경”)라고 하는 소풍을 간다. 벚꽃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소풍 풍습은 에도 시대 이래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다.

### 골든 위크

4월은 신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과 특히, 4월부터 일을 시작하는 신입 직원들에게는 무척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달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4월 말부터 1주일에서 열흘 정도 휴가를 즐긴다. 이 기간에는 4월 29일 쇼와의 날, 5월 3일 제헌절, 5월 4일 식목일, 5월 5일 어린이날과 같은 국경일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골든 위크”라고 불린다. 날씨가 따뜻하고 소풍가기에 좋아서 일본 전역의 관광지는 방문객들로 붐빈다. 골든 위크 때에는 교통 체증과 함께 열차가 붐비고, 공항이 혼잡하기도 유명하다.

### 어린이날

골든위크에 속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전통적으로 탄고노 세쿠(또는 “남자아이의 날”)라고 부르며 남자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미래에 사업적으로 성공하기를 비는 날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장식에는 기둥에 매어두는 잉어(‘고이노보리’)처럼 생긴 가느다란 천 장식과 군인 옷을 입은 인형(‘무샤닌교’)이 있고 특별히 준비하는 요리로는 대나무 잎으로 싸인 쌀만두(‘지마키’)와 참나무 잎으로 싸인 떡(‘가시와모치’)이 있다.



**세츠분**  
‘세츠분’은 콩을 뿌려  
귀신을 쫓는 의식.



**히나가자리**  
3월 초에 인형과 장신구, 복숭아 꽃을 장식한다.



고대에는 매년 다섯 번째 달은 나쁜 달로 여겼으며 특히 그달의 다섯 번째 날은 특히 불길한 날로 생각하였다. 탄고노 세쿠는 매년 불결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 의식 관습을 행하는 날에서 발전하였다.

이날에는 붓꽃 잎을 넣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풍습이 있다. 전통적으로 그러한 잎은 약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악귀도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다.

## 여름

### 다나바타(칠석)

여름의 첫 번째 연례행사는 다나바타로 알려져 있는 7월 7일이다. 이 날은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의 황실로 처음으로 전해졌고 그 이후로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견우성”과 “직녀성”이 일 년에 한 번 은하수에서 만난다는 로맨틱한 이야기를 기념하는 날이며 이날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정원이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사람들은 잎이 달린 대나무의 가지에 그들의 소원을 적은 기다란 종이를 붙여 장식한다.

오늘날, 다나바타 축제는 일본 전역에서 열린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축제는 교토의 기타노 덴만구 신사와 가가와현의 곤피라 신사 및 가나가와현의 히라추카시와 도야마현의 다카오카시에서 열린다. 또한, 한 달 후 8월 7일에 열리는 미야기현의 센다이 다나바타 축제도 아주 유명하다. 이 날은 과거에 음력으로 다나바타를 기념한 날과 더 가깝다.

### 불꽃놀이

일본전역에 걸쳐 다양한 지역에서 불꽃놀이 대회(‘하나비 다이카이’)를 개최하면 여름 밤은 화려한 불꽃놀이로 물들어진다. 일본의 불꽃놀이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으며 에도시대로부터 대를 이어 전래하여



내려왔다. 오늘날의 불꽃놀이는 정확도와 화려한 시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종 컴퓨터로 제어한다. 도쿄의 스미다강을 따라 벌어지는 불꽃놀이는 에도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연례행사이다.

### 봉

봉 또는 오봉은 집을 방문하는 조상의 영혼을 환영하고 위안하는 연례 관습이다. 이 풍습은 전통적으로 음력으로 일곱 번째 달의 중순경에 지켰다. 현재는 7월 13일과 15일 사이에 대부분의 장소에서 기념하며 8월 13일과 15일 사이에 기념하는 곳도 있다.

7월 13일에는 조상의 영을 맞이 하기 위해 환영 불(‘무카에비’)을 밝힌다. 그리고 16일에는 조상의 영혼이 영계로 돌아가는 것을 기리기 위해 환송 불(‘오쿠리비’)을 밝힌다.



### 다나바타(칠석)

7월 7일 다나바타 축제에는 길고 가는 종이에 소원을 써서 조릿대 잎에 매단다.



불꽃놀이

## 쓰키미(달구경)

보름달을 감상하는 달 구경 때에는, 경단과 참역새의 이식을 공물로 바친다.

봄 기간 중에는 많은 회사와 상점들이 휴가를 위해 문을 닫는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 및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골든위크처럼 운송시설은 이 기간 동안 매우 붐빈다.

## 가을

### 초키미(달 구경)

음력 아홉 번째 달의 중순경에 떠오르는 보름달은 중추월(‘즈슈노 메이게츠’)이라고 불리며, 특별히 아름다운 이 달을 감상하기 위해 달 구경 모임을 계획하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원래 중국에서 행하던 풍습이며 헤이안 시대(794-1185)에 일본에 전래되었다. 에우라리아 풀(‘스스키’)로 집을 장식하며 만두를 빚고 가을에 수확한 곡식들 중 일부를 달에게 바친다.

### 시치고산

11월 15일은 그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기 위해 세 살과 다섯 살의 남자아이와 혹은 세 살과 일곱 살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신도 신사를 방문하는 날이다. 전통적으로 키가 작은 남자아이들은 ‘하오리’(일본의 반코트)와 ‘하카마’(앞이 갈라진 치마)를 입고 여자아이는 기모노를 입는다. 하지만 요즘에는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기도 한다. 이날에 부모들은 신사에서 장수를 위한 기도를 들어 준다는 ‘치토세-아메’라고 하는 사탕 같은 것을 사며 집에서 가족들은 팔밥(‘세키한’)과 머리에서 꼬리까지 통째로 준비한 감성돔(‘오카시라츠키노 타이’)을 먹으며 그날을 기념한다.

### 시치고산

아이가 3살, 5살 또는 7살이 된 해의 11월 15일에 신사에 데려가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 겨울

### 보네키(송년회)

12월이 시작되면 ‘보네키’라고 하는 송년회가 여러 술집이나 식당에서 열린다. 일 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어려웠던 일들은 잊으려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연말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송년회를 즐긴다. 학생들로부터 직장인들까지 모든 종류의 모임에 속한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느라 아주 바빠진다.

### 크리스마스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는 계절행사로 유행하게 되었으며 기독교인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본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는 것을 좋아한다.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신나는 날이기도 하다.

### 오미소카(선달그믐날)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보네키’가 끝나면 곧 일본어로 ‘오미소카’라고 하는 12월 31일이 된다. 자정이 되기 바로 전에 전국의 절에서는 ‘조야노 카네’라고 하는 풍습으로 일제히 종을 친다. 종은 108번 치게 되는데 이것은 108가지 번뇌(‘본노’)라고 불리는 것을 정화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쇼가츠 행사와 함께 새해가 시작된다.



제야의 종